

## 마리오네트(marionette)와 건축사

Marionette and Architect

글. 백민석 · 본지 편집국장

신은 자신의 모습을 본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닮은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마리오네트를 움직이게 하는 끈은, 어쩌면 신이 인간에 불어넣은 영혼의 숨결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리오네트는 관절마다 매달린 끈을 이용한 인간의 조종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가만히 놓거나 서 있기만 하던 인형이 발떡 일어나 말하기도 합니다. 제법 섬세하게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인간을 닮은 창조물인 인형이 인간처럼 걸을 수도 뛸 수도 춤출 수도 있습니다.

마리오네트의 기원을 살펴보면 기원전 이집트나 그리스의 아이 무덤에 끈이 연결된 인형이 함께 묻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절의 기록에도 비슷한 형태의 인형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지금의 마리오네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에서입니다. 이탈리아의 교회에서는 어린이 교육을 위해 끈이 달린 인형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마리오네트'라는 이름도 성서 속 '동정녀 마리아(Mary)'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 교회의 공연은 마리오네트의 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지만 세속에 나온 마리오네트 공연은 당시 유행하던 기사 문학이나 시, 민담 등을 소재로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울렸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 나간 마리오네트는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문화와 조화시켰고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예술적 완성도를 높여갔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마리오네트의 본고장으로 체코(Czech)를 꼽습니다. 체코에서 마리오네트는 체코 문화의 상징입니다. 체코의 정체성과 언어, 문화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후반 독일어와 독일 문화에 경도된 체코의 귀족들로 인해 체코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을 때 체코어로 진행된 마리오네트 공연은 대중들의 삶과 밀착돼 있던 문학이나 민담을 소재로 대중들의 정서적 중심점이 됐습니다. 체코의 마리오네트는 예술가적 감수성과 장인 정신으로 무장한 채 시대마다 저항했습니다. 대중과 함께 울고 웃었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다. 그리고 세계로부터 명성을 얻었습니다.

최근 국내 정치계에 마리오네트가 등장했습니다. 체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마리오네트와는 정반대로 국민들을 참담함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건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전문기술자 그룹의 이기심에 건축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건축사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리오네트의 손, 팔, 발, 다리 등의 각 부분을 여러 사람이 조정하는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관중들에게 공연의 가치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관중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국내의 정세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나라도 걱정이지만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이익집단의 공세에 건축사들이 속수무책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답한 오늘입니다.

